

장애연금수급자 재활서비스 실태 및 욕구

- 장애연금수급자는 중도장애인들로서 재활치료 후 원직장 복귀의사가 매우 강하며, 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장애인 일수록 국민연금 공단의 재활서비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남

- 의료, 직업 및 사회재활 서비스제공에 대해 장애인들의 특성에 따라 개별 서비스 욕구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장애발생 초기에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상담을 통해 의료재활서비스와 직업재활서비스 간 연계성을 통해 조기 직업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1. 장애연금 현황 및 실태

- 2008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250만 명에 이르며, 이중 장애연금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만 2천여 명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3천1백억 원(일시금 포함)에 달하고 있음
- 2010년 8월말 현재 국민연금 통계로부터 장애연금 수급자는 총 61,762명이며 이중 남성은 54,242명, 여성은 7,520명으로 파악되었고, 연금지급액은 총 2천억원 정도이며, 이러한 수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현행 장애연금제도는 장애이후 기능적(의학) 심사를 통해 부여된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근로능력의 상실에 따른 소득 감소의 비중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장애판정 이후 재활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경제활동 복귀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장애연금 수급자의 재활 및 관련 자립의지에 기초한 적극적이고, 장애인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소득보전만을 목적으로 장애연금만을 지급하는 것은 단편적이고 지속가능하지 못한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재활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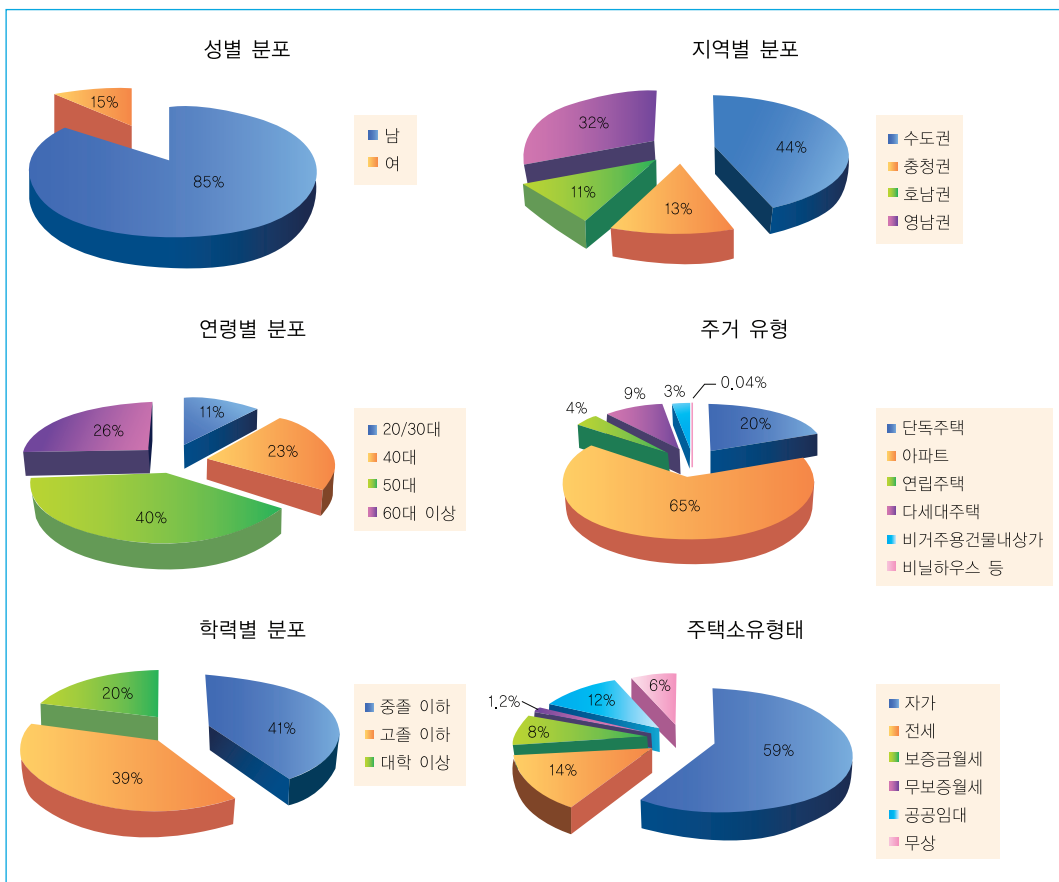
2. 장애연금수급자의 재활 실태 및 욕구

□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애연금수급자의 85%가 남성이고, 여성은 15%였으며, 연령대는 2~30대가 11.3%, 40대가 23%, 50대가 40%, 60대 이상이 26%로 50대의 비중이 높았고, 학력별로는 중졸이하가 41%, 고졸이하 39%, 대학이상은 21%로서 저학력인구비중이 높았음

-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54%가 근로가능하며, 나머지 46%가 근로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의 장애이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사무직종사자가 11%, 판매종사자 12%, 기능원 및 관련기술종사자가 22%, 단순노무자가 13%로 나타나, 중도 장애인 대다수가 기술관련 직종에 종사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장애연금 수급자의 현재 근무 직장에 대해 전체의 약 4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근무지에 대한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자의 35%가 낮은 수입, 17%가 업무과다 등으로 나타났고,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26%를 차지하였음

[그림 1] 장애연금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현재 직장에서 타직장으로의 이직의사가 있는 경우가 14%였으며, 이들의 희망직종 1순위는 서비스업으로 48%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제조업이 18%의 순으로 나타났음
- 장애 발생 이전과 이후의 소득변화를 파악한 결과 장애발생 이전의 소득은 평균 218만원이었으나, 장애발생 이후 소득은 181만원으로,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가 크게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의 시기인 5~60대의 소득 감소가 타 연령층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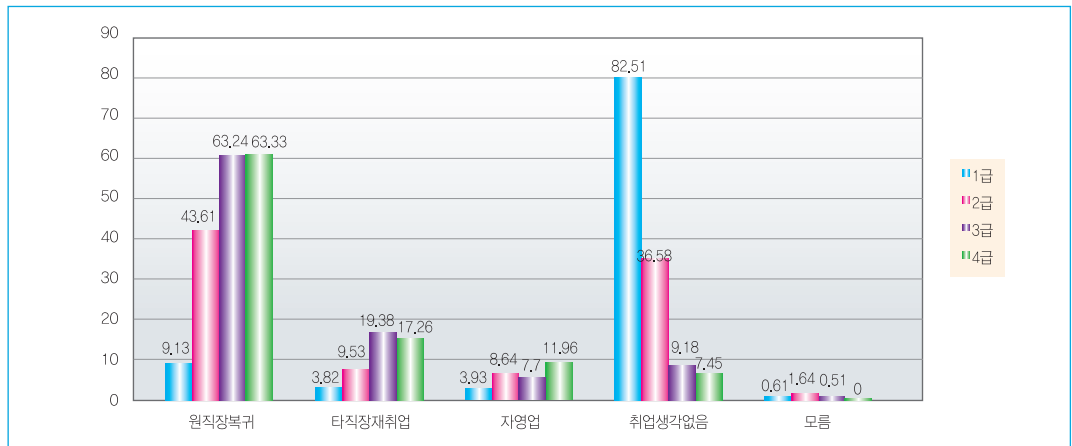
□ 장애연금 수급자들의 재활실태 및 욕구

-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1급이 11%, 2급 33%, 3급 52%, 4급 4%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가 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신장질환 17%, 척추장애 16% 등으로 나타났음

- 장애발생 원인별로는 사고로 인한 장애가 33.1%, 질환으로 인한 장애가 66.9%의 비율로 나타났고, 사고유형별로 살펴보면, “근로 중 사고”의 비율이 62.6%로 가장 높았고, “교통사고”와 “기타사고 및 외상”의 비율은 각 24.1%, 8.9%로 나타났음. 질환유형별로는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의 비율이 24.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경계통의 질환”과 “순환기계통의 질환”의 비율이 각 22.7%, 14.8%로 나타났음
- 장애연금 수급자 중 약 98%가 병원에서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복지관 0.66%, 재활시설 0.81%로 타 기관에서 재활상담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활종료 후 희망하는 진로에 대해서 장애등급과 무관하여 원직장 복귀에 대한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3, 4급인 경증장애인의 복귀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의사가 없다는 비율이 장애 등급에 따라 낮아짐을 알 수 있음

[그림 2] 재활종료 후 희망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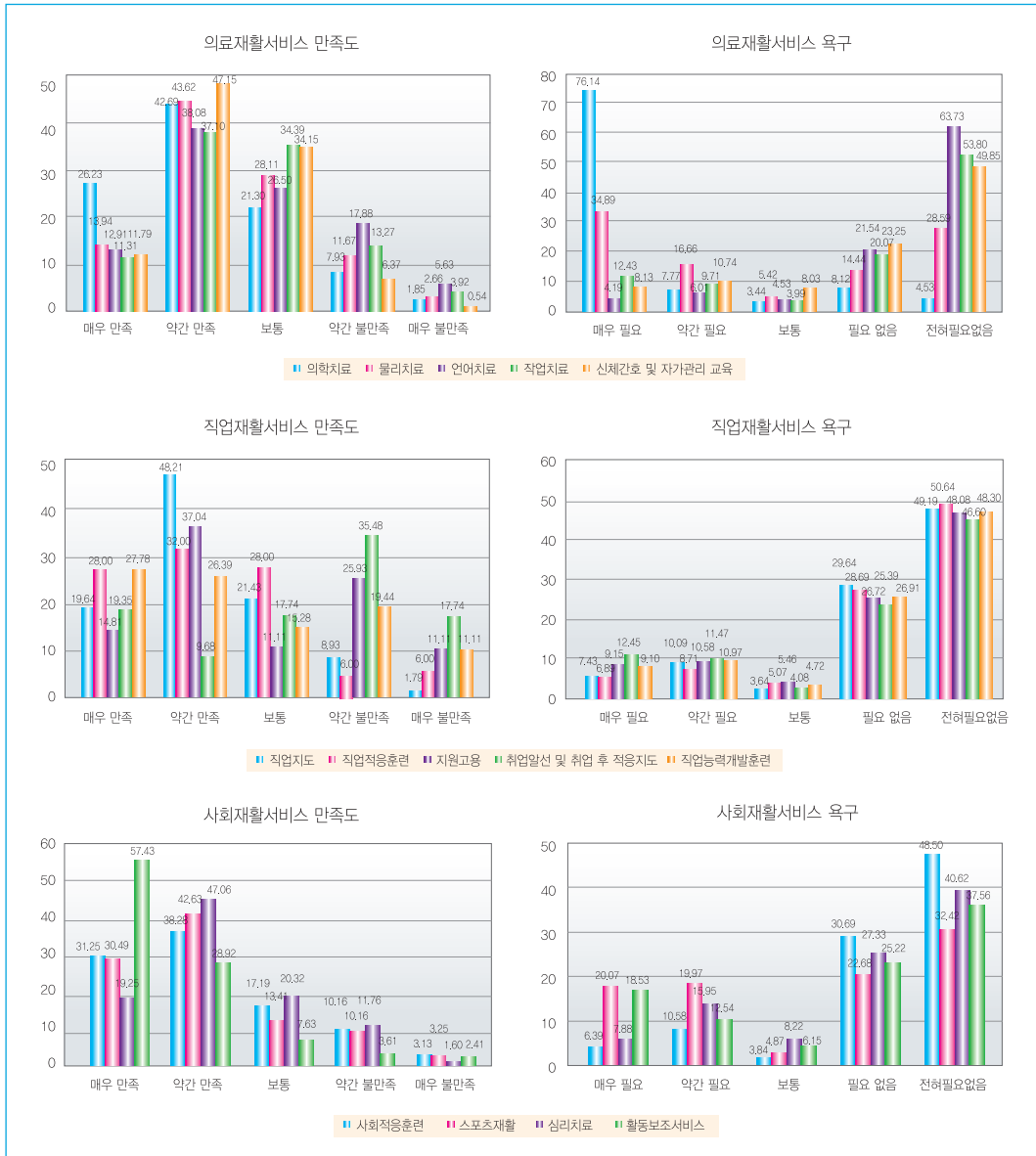
(단위: %)



-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82%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서비스 경험자 또는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사회재활서비스 이용 또는 경험자는 15%정도 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의료재활서비스 중 의학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69%), 다음으로 신체 및 자가관리교육이 59%, 물리치료서비스가 58%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욕구를 살펴보면 의학치료가 84%로 가장 높았으며, 물리치료서비스 욕구가 52%, 작업치료 22%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욕구가 가장 낮은 것은 언어치료서비스로 85%정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재활서비스 중에서는 직업지도서비스가 68%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업적응훈련이 60%, 직업능력개발훈련이 5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별 욕구도를 파악한 결과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6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29%, 지원고용이 28.9%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사회재활서비스 중에서는 활동보조 등 서비스에 대해 8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포츠재활서비스 73%, 사회적응훈련 서비스가 69%의 순으로 나타났고, 서비스욕구에 대해서는 스포츠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전체의 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활동보조 등 서비스 31%, 심리치료서비스 24%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 재활서비스별 만족도 및 욕구

(단위: %)



- 의료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기관들 중 “종합병원”이 52.7%로 가장 높았고, “병·의원” 35.3%, “재활 병·의원” 6.6%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중 1~3급의 종합병원 이용률이 50~57%인 반면 4급의 경우 병의원 이용률이 55%로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의 병의원 이용률이 높았음
-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용률은 “작업훈련시설(49.6%)”, “보호작업시설(17.6%)”, “근로작업시설(11.8%)”의 순이며, 직업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한 이유로는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서(56.1%)”, “주변사람들의 추천으로(17.5%)”로 나타났음
-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들은 주로 여성이며, 저연령층이고, 중증장애인들로 나타났으며, 지체장애인이 많은 이용률을 보였고, 장애인들의 사회재활 서비스 이용기간은 2년 이상이 53%, 1년 미만은 21%로 장기간 재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재활서비스 이용비용은 평균 7만 6천 원 정도로 나타났음

3. 장애연금수급자의 연금공단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분석

□ 의료재활서비스

- 의료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전체적으로 고령층,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의학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장애인 일수록,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물리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욕구가 높았고, 수도권 보다는 지방 거주 장애인들이, 지체장애인들의 서비스욕구가 높았음
 - 언어치료에 대한 욕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중증장애인이며,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이 높았음
 - 작업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중증장애인이며, 지체장애인이 높았고, 신체간호 등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고령층이고, 수도권 거주자이며, 중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 일수록 높았음

□ 직업재활서비스

- 직업재활서비스의 경우 저연령층이며, 수도권 거주장애인이고 경증장애인들의 서비스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작업지도서비스의 경우 젊은 연령층이고, 수도권 거주자이며, 중증장애인이고,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일수록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직업적응훈련 서비스에 대해 젊은 연령층, 수도권 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지원고용서비스 욕구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 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의 서비스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취업알선 등의 서비스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 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장애인의 서비스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직업능력개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 거주자,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 일수록 서비스 욕구가 높았음

□ 사회재활서비스

- 사회재활서비스의 경우 스포츠재활서비스의 욕구가 높았으며, 고령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서비스욕구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수도권 거주 장애인이고, 중증장애인들의 서비스욕구가 높았음
 - 사회적응훈련 서비스의 경우 고령자 보다는 젊은 층의 욕구가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 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스포츠재활서비스의 경우 젊은 층의 욕구가 높았으며, 수도권 거주 장애인이며, 경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심리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젊은 연령층, 수도권 거주자, 중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 일수록 서비스 욕구가 높았음
 - 활동보조인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고령층, 수도권 거주 장애인, 중증장애인, 지체 및 수족(손, 팔, 다리)장애인 일수록 서비스욕구가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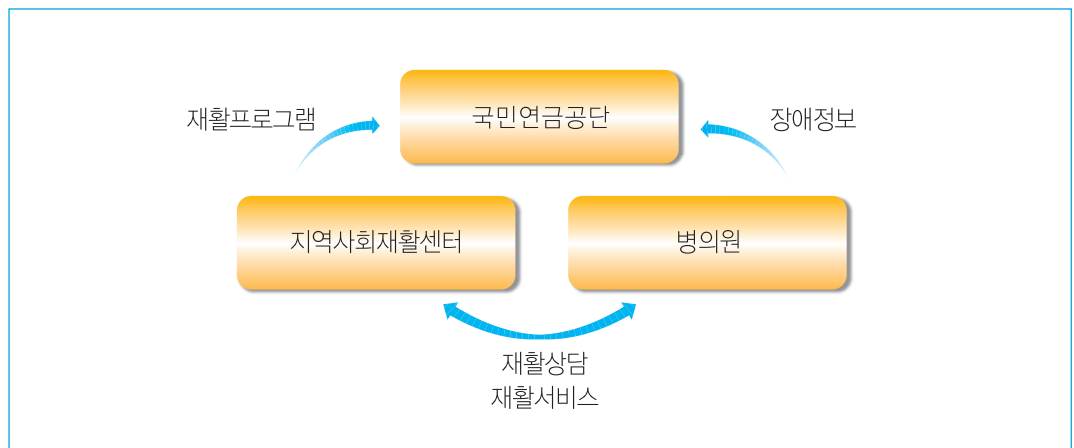
[표 1]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활서비스별 욕구분석

의료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구분	Effect	모형1	구분	모형1	구분	모형1
		추정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의학치료	절편	3.8907***	작업지도	3.5085***	사회적응훈련	2.3765***
	성별더미	-0.1476		0.1456		0.003559
	연령	0.008026*		-0.03242***		-0.01224***
	학력더미	-0.02821		0.008762		0.07711
	지역더미	-0.08792		0.144*		0.119*
	장애등급더미	0.1515*		-0.188*		0.1922***
	장애유형더미	-0.3163***		0.1347*		-0.00148
물리치료	절편	2.846***	직업적응훈련	3.47***	스포츠재활	3.7687***
	성별더미	-0.3274***		0.1263		-0.1024
	연령	0.003262		-0.03192***		-0.02247***
	학력더미	0.04908		-0.02734		0.06105
	지역더미	-0.1544*		0.1188*		0.1988**
	장애등급더미	0.07455		-0.171*		-0.1574*
	장애유형더미	1.0278***		0.1393*		0.4525***
언어	절편	0.8035***	지원고용	4.0273***	심리치료	2.8261***
	성별더미	0.05176		0.1078		-0.133
	연령	0.008559**		-0.03812***		-0.0125***
	학력더미	0.02238		-0.04004		-0.01912
	지역더미	0.032		0.2025***		0.1941**
	장애등급더미	0.3598***		-0.3174***		0.1293*
	장애유형더미	0.4095***		0.1605*		0.139*
작업치료	절편	0.8035***	취업알선 등	4.0273***	활동 보조 서비스 등	2.8261***
	성별더미	0.04352		0.1058		-0.2019*
	연령	0.00034		-0.0431***		0.008294*
	학력더미	-0.04227		-0.00225		0.02333
	지역더미	0.06075		0.2665***		0.1977**
	장애등급더미	0.5131***		-0.3591***		0.8392***
	장애유형더미	0.7331***		0.1538*		0.1902**
신체간호 및 자기관리 교육	절편	1.1794***	직업능력개발	4.2474***		
	성별 더미	0.04175		0.08819		
	연령	0.009275**		-0.04211***		
	학력더미	-0.02153		-0.07085		
	지역더미	0.1562**		0.1372*		
	장애등급더미	0.3052***		-0.2449***		
	장애유형더미	0.2895***		0.1501		

4. 정책적 제언

- 장애연금 수급자 가구의 소득 상태는 중하위 또는 하상위 층이 전체의 약 8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경제활동 참여 또는 직업복귀가 가능하도록 직업재활 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의료재활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응답자의 대다수가 의료재활의 욕구는 강하지만,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활서비스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비스 연계와 더불어 재활 프로그램에서의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민연금공단의 재활서비스 제공시 공단 지사에 전문 상담인력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공단에서는 재활상담 서비스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신청시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장애인에 대한 보호차원의 상담이 아닌 장애인의 현재 상태에 적합한 재활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관련 기관의 소개 및 궁극적인 재활서비스의 목적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장애인 스스로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최종적으로 직업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욕구 및 장애인의 상태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병원 및 재활서비스 센터 등과 연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정보 네트워크(전산망)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그림 4] 재활장애인 정보 네트워크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장애인의 재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재활기관과의 연계가 필요함

○ 수도권 거주 장애인의 경우 재활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재활서비스에 관한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시간적 제약 등으로 재활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시간대별 서비스제공과 지방 거주 장애인의 활동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됨

□ 국민연금공단에서 재활서비스 제공에 대한 욕구를 분석한 결과 젊은 연령층의 욕구가 높았고, 지역적으로 수도권 거주 장애인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 서비스 모형 구축 시 연령별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관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

○ 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직업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모형 구축시 장애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 복귀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표 2〉 단계별 재활서비스 제공 내용

시기	초기	중기	최종
재활서비스	의료재활	의료재활+직업재활	직업재활+사회재활
국민연금공단의 역할	- 장애인 특성에 따른 재활서비스 상담 - 병의원 재활 상담 및 지역재활센터 지원	- 재활참여 모니터링 및 상담 - 직업재활 서비스 지원 및 직장 복귀상	- 사회재활 서비스 연계제공 - 재활 성공사례 발굴 및 전파

손창균(보건복지정보통계실 부연구위원) 문의(02-380-838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